



차이나펀드,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증권사 설립 신청 받는다 금감위장 “연말까지 접수”

금융감독 당국이 올해 11~12월에 증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가 신청을 받는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올 연말부터 5년만에 처음으로 증권사 신규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2002년 10월 증권사들의 적자 심화로 신규 설립 허가를 중단했었다.

금감위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월에 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을 발표하고 바로 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 연말까지 접수할 것”이라며 “증권사 신규 설립 인허가 기간과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회사법 적용 시점 등을 감안했을 때 11~12월이 인가 신청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 후 인가를 받는데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에 신청하면 관련 규정이 중간에 바뀌게 돼 인가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신규 증권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보험사, 신용카드사, 국내 및 외국계 은행 등이 증권사를 신규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증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본토 A·B주, 홍콩 H주 구분 주의를

수익률 정반대 현상 찾아... 투자팬 유동성 풍부한 홍콩 펀드 ‘유리’

리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있는 상황이다.

중국 펀드 중에서 최근 중국 관련 펀드의 행보가 눈에 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증시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하이 증시의 PER이 60배, 선전 증시의 PER이 70배를 넘어가는 등 과열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의견과 아직 소비과열까지 이어지지 않은 만큼 성장성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여

리위원회로부터 역외기관투자자 자격을 받은 외국인도 투자가 가능하다. B주식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주식으로 B주식에는 차이나텍스타일, 상하이 제철 등 유망주가 다수 상장돼 있고 달러와 홍콩달러와 같은 외화로 거래되는데 중국 국적의 자영업자와 법인으로 투자자격이 제한돼 있었지만 2002년 12월부터 증권감독관

알파벳을 따서 H주식, N주식, T주식, L주식, S주식 등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중국 펀드라 하면 홍콩의 H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었지만 최근 들어 역외기관투자자 자격을 획득해 중국 본토의 A주식과 B주식을 편입하는 펀드가 늘고 있다. 이러한 펀드의 대표격이 PCA 차이나드래곤펀드와 동부차이나펀드다. 실제로 올해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하면 중국 본토의 주식과 H주식의 수익률이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빈번해 한

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올해 초 1,400 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2,000 포인트를 돌파했는데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한국 증시의 규모가 세계 증시의 2%에 불과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흐름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펀드 중에서도 최근 중국 관련 펀드의 행보가 눈에 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증시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하이 증시의 PER이 60배, 선전 증시의 PER이 70배를 넘어가는 등 과열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의견과 아직 소비과열까지 이어지지 않은 만큼 성장성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여

코스피 사흘 연속 최고가 행진

17.73P ↑ ... 2,058.85 마감

주식시장이 뉴욕증시의 혼조 소식에도 사흘째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7.73포인트(0.87%) 오른 2,058.85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기관의 매도세로 0.98포인트(0.12%) 내린 817.28로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중 2,058.87까지 오르며 8일 이후 나흘 연속으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이 기간 62.82포인트(3.15%) 상승했다.

전날(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혼조세로 돌아섰지만 아시

아 증시는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보다 281.09포인트(1.64%) 상승한 17,458.98. 대만의 가권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7.84포인트(0.60%) 오른 9,697.67로 마감했다.

중국 증시도 닷새째 신고가를 행진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 2시47분 현재 전일보다 128.68포인트(2.23%) 급등한 5,900.14로 사상 최초로 5,900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10월 콜금리 운용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마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난감 도서관에 오세요

광주 희망장난감 도서관이 11일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을 연 가운데 개관식을 마친 송광문 광주 북구청장(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임우진 광주시 행정

부시장,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 전우만 광주신세계 대표 등이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신세계·한국복지재단이 공동개관한 이 도서관에는 1천여점의 어린이장난감과 놀이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신세계제공)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 5% 경상수지는 11년만에 적자

KDI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5.0%를 기록하겠지만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악화 영향으로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1일 내놓은 '2007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도 9% 후반에 머물겠지만 내수가 4%대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4.9%와 유사한 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비(非)IT 부문 및 제조

업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7.6%에 이어 내년 6%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투자는 올해 3.3%보다 높은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가 올해보다 다소 축소된 2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추세가 계속되면서 적자규모가 올해 260억 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28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결국 경상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하락한 3.3%,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4%에서 내년 2.8%로 완만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생산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고 총수요 항목에서는 내수와 수출이 고른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올 성장률 전망치 4.5~5% 수준으로 상향

韓銀, 콜금리 5% 유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높은 4% 후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10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의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동결하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수정 전망했는데, 최근 회복세가 빨라져 4.5%보다 올라가

서 4.5~5%의 중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3·4분기에 경제성장 속도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빨랐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을 보면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 수요도 비교적 관망해서 경기 상승 기초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동성 증가 속도는 아직 뚜렷하게 둔화



하는 기미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금리 인상이 각종 여·수신 금리 및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결돼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실 카드 사고 보상을 60% 불과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확률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약관에 회원이 적시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에 따른 보상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부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은 7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은 도난·분실 및 카드정보·명의도용·미수령 등 각종 신용카드 사고에서 비롯된 부정금액에서 실제 보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카드사는 고객이 약관에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금액을 모두 보상하지는 않는다.

카드 사고보상률은 2004년 86.5%, 2005년 76.9%, 2006년 76.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 보상률은 올 1분기에 59.7%로 집계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선 이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못 믿겠네”

기금운용 잘못 등 신뢰도 급락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20대 이상 성인남녀 1천230명의 12.8%만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26.7%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 등을 주로 꼽았다.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9.4%)”,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해서(4.5%)”,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아서(3.1%)” 등도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전남지역민 신용위험 가능성 크다

대출금 연체 등 리스크 포인트 290 ... 전국 최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대로는 10~20대가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용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인신용(KCB)은 11일 개인신용정보 서비스인 ‘올크레딧’ 회원 3천20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전남의 리스크 포인트(RP)는 290로 가장 낮은 서울 145보다 무려 2배가 높았고, 남성의 리스크포인트는 193으로 여성(155)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RP는 대출 고액 1만명 중 향후 1년간 한 차례 이상 장기 연체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고객 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8, 10대가

196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이어 40대 178, 50대 162, 30대 160, 60대 15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9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45로 가장 낮았다.

KCB 관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10~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소비패턴이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신용위험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과 KCB는 다음달 말까지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무료로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크레딧 무료진단 홈페이지(risk.allcredit.c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 나온다

삼성전기 핵심부품 개발

물만 있으면 작동하는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삼성전기는 11일 휴대전화용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초소형 수소 발생장치(이하 카트리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물이나 메탄올 등에서 수소를 추출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차세대 전지를 말하며, 삼성전기가 개발한 이 제품은 메탄올 없이 물만 이용한다.

이 카트리지는 크기가 40cc에 불

과한 초소형이지만 최대 3W의 출력을 낼 수 있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기는 이 카트리지가 장착된 연료전지를 사용하면 기존 2차 전지의 2배 이상인 10시간 동안 연속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소비자가 하루 평균 4시간씩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5일에 한 번씩만 카트리지를 교체하면 된다”며 “기술개발이 더 진전되면 카트리지를 교체하지 않고 물만 카트리지에 다시 채워넣어도 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